

경제민주화란 무엇인가?

황익서 (서울시립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경제와 정치

경제논리와 정치논리는 분명한 차이가 있어 구별되어야 하지만, 현실에서 경제와 정치는 한 배를 타고 있다. 정경유착이라는 말은 부정적 느낌이 강하지만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정치와 경제는 상부상조하면서 발전해왔다. 정치상황이 불안하거나 혁명적인 분위기에서는 경제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 독재 체제하에서는 정치적 안정 속에서 단기간에 경제성장을 이뤄 낼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빈부격차를 유발하여 불균등하고 불안정한 사회를 만들어낸다. 민주주의는 외형적으로는 불안정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가장 안정되고 건강한 사회를 반영한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경제와 정치는 상생하며 발전한다.

대공황의 처방

1929년 전 세계가 대공황에 휩쓸리자, 경제학자 케인즈와 슈메터는 서로 다른 처방을 내놓았다. 케인즈는 수요가 부족해서 발생한 공황이므로 국가가 적자재정을 감수하고 수요를 창출해서 공황을 극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많은 나라들이 케인즈의 주장을 받아들여 재정적자를 통하여 경기를 활성화하는 방법을 채택했다. 케인즈의 이론을 추종한 국가들은 계속해서 재정적자를 누적시켜 왔고, 이는 현재 세계경제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

대공황을 자본주의가 가지는 구조적 모순으로 본 슈메터는 케인즈의 주장을 단기적 처방이라고 비판하였다. 그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 집중은 피할 수 없는 현상으로 독점 형태를 가져오고 경제의 비효율성을 초래할 수 있다고 보았다. 소수의 자본가들이 정치권과 결합하여 이권을 보호받고, 정치가들은 사회적 안정을 이유로 거대 자본을 감싸게 된다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자본가는 다수의 경영인을 거느린 관리인, 대기업은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는 공룡이 된다. 결국 소수의 자본가와 정치가가 나라를 이끄는 과두정치 구조가 탄생되며 사회는 소수의 것이 되고 역동성은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다.

자본 집중으로 인한 경제의 비효율성을 방지하고 시장 경제의 역동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슈메터는 기업이 정신과 민주주의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경제사회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역동성이 필요하다. 기업이 정신이 사라진 사회에서는 더 이상의 경제 발전을 기대할 수 없게 된다. 기업이 정신을 살리려면 사회가 경직되는 것을 막아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공정한 경쟁을 펼칠 수 있고 객관적으로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투명한 사회가 선결되어야 한다. 즉, 모두에게 동일한 기회가 열려 있고 새로운 비전과 도전을 꿈꿀 수 있는 사회가 필요한데, 슈메터는 이러한 사회가 오직 민주주의에서만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모두에게 동일한 기회가 보장된 민주주의는 사회를 유연하게 하고 새로운 생기를 불어 넣는다. 자본 집중은 경쟁 사회의 자연스러운 결과 중 하나이다. 민주주의는 이 자본 집중에 따른 부정적 결과들을 보완해야 한다. 경제논리가 만들어낸 어두운 그림자들을 정치논리가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이다.



bond exchange rate
 endorses stimulus package
 mutual fund
 MARKET JITTERS
 dollar weakens
 easing credit strains
 spending power
 slow revival
 mortgage
 Inflation
 Emergency loans
 Global trends
 CREDIT CRUNCH
 Financial crisis
 Downturn
 Economic disaster looming
 SHARES WORTHLESS
 Worldwide
 Survival in doubt
 Interest rates
 Stocks tumble
 assets
 STOCK MARKET
 slump
 risk
 liquidity
 key indices
 commodities
 currencies
 MONETARY POLICY
 earnings
 announces trading loss
 Offshore
 Govt. funds
 fear grows
 Pension funds up
 Global trends
 RECESSION FORECAST
 Bust!

슈페터의 이러한 주장은 독일에서 실제로 활용되었는 데, 현재 독일은 통일에 따른 재정부담이 있었음에도 선진국 중에서 재정적자가 가장 적은 나라이다. 독일은 민주주의를 통한 다양한 방법으로 자본주의의 약점을 보완하고 있다. 자본 집중 및 수급 불균형으로 야기된 문제들의 근본적인 치유에 집중하고 있는데, 기업 운영에 자본가 못지않게 노동자들의 참여가 보장되어 있는 것이나 중산층의 재산 형성을 위한 재정정책들이 시행되고 있는 것들이 대표적인 예이다. 또한 경제민주화의 개념에 경제공동체의 개념이 포함되어 있다 하여 공동체의 삶의 질적 향상에도 관심을 갖는다. 특히 환경 보호에 대한 독일인들의 관심은 경제민주화라는 틀 안에서 녹색산업에 대한 진출을 일찍부터 가능하게 만들었다. 국민 모두의 합의로 원자력발전소를 폐쇄하고, 태양광, 풍력 등 대체에너지 산업개발에 선두 주자로 나서게 되었다. 모든 구성원들의 합의를 이끌어 불확실한 미래를 개척해가는 경제민주화는 장기적 관점에서 경제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워간다. 일찍부터 경제민주화를 실천해온 독일은 사회적 안정 속에서 경제발전을 추구한 대표적인 모델로 인정받고 있다.

한국의 경제민주화

경제민주화는 오늘날 한국의 시대적 요구사항으로,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그동안 경제발전에서 소외되었던 사람들의 요구이다. 한국경제는 국가 중심으로 발전해왔다. 국가가 차관을 얻어 소수의 기업을 육성하고 수출 정책을 통해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하도록 도와주었으며, 국민들 대다수는 이러한 상황에서 묵묵히 희생을 감수해왔다. 그러나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한 자본가들은 과거는 모두 잊고 모든 것을 자신들의 노력에 대한 정당한 대가로 생각하려 한다. 그동안 경제발전에서 소외당하고 희생을 감수해온 국민들은 이러한 경제논리를 수긍하기 어렵다. 경제논리는 현재 소유자의 권리만 인정하려고 하지만, 정치논리는 지금까지 희생을 감수한 사람에게는 적절하게 보상하고자 한다.



둘째, 경제논리는 커져 가는 빈부격차를 해소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이를 정치논리로 보완해야 한다는 것이다. 자본주의가 가지는 구조적 모순이 한국에서도 현실로 드러나고 있다. 빈부격차는 단순한 복지정책만으로 해결하기 어렵다. 자본주의 사회 구조의 미흡한 부분을 근본적으로 보완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자본은 힘을 가지고 있으므로 심각한 자본 집중 상태에서는 시장 경제와 민주주의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없다. 모든 사람에게 균등한 기회가 주어지고, 공정한 경쟁사회가 유지되도록 제도적으로 보완되어야 한다.

셋째, 건강한 경제공동체를 이룩하기 위해서이다. 무분별한 이기주의는 공동체를 위협한다. 산업스파이들이 활개치는 것은 자신이 속한 경제공동체에 대한 소속감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다. 개인과 공동체는 서로 분리할 수 없는 유기체이다. 개인이 잘되면 공동체에 이익이 되고, 공동체가 든든하면 개인에게도 이익이 된다. 연예인들이 만들어낸 한류가 한국이라는 경제공동체에 이익이 되고, 한국 경제공동체가 강해지면 한류 확산에 도움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이다. 경제민주화는 경제공동체를 건강하게 유지하여 개인에게도 이익이 된다. 따라서 한국이라는 경제공동체를 건강하게 유지하게 위해서는 경제민주화가 불가피하다.



황의서 독일 쾰른대 대학원 경제학 박사, 현재 서울시립대학교 경제학부 교수이다. 한국 기독교 경제학회 회장이자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학회이사이며 기독교학문연구회 경제/경영 분과장으로 섬기고 있다. 저서로는 '독일 통일 이야기', '아스미디아', '경제와 신앙', '시그마프레스', '세상을 이기는 30가지 경제 마인드', '행복한 집', '경제발전과 경제윤리' (서광사) 등이 있다.

그리스도인이 경제민주화를 바라보는 시각

유럽에서 1920년대부터 시작된 경제민주화 논쟁이 이제 한국에서도 시작되었다. 경제민주화는 자본에 대한 인간의 주권과 인간성 회복을 목적으로 한다. 힘을 가진 자본은 자연스럽게 자본 집중과 불공정한 분배를 초래하게 된다. 아담 스미스는 이러한 상황을 시정하도록 창조주가 인간에게 사명을 부여했다고 주장했다. 하나님은 소수의 귀족과 지주들에게 토지를 나누어 주셨지만 토지가 없는 사람들에게도 그 소산이 분배되기를,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평화를 누리게 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소득수준이 높아질수록 가정이 화목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쾌적한 환경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 그러나 오늘날 한국에서는 소득수준은 높아지고 있지만 자살률도 높고, 삶의 환경은 악화되고 있다. 자녀의 교육수준은 투자한 돈에 비례하고 돈으로 만들어진 학력은 자유경쟁을 제한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소득수준은 높아지고 있지만, 국민들은 균등한 기회가 사라지고 있다고 느낀다. 돈이 사람을 지배하고 자본주의 사회의 폐단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물질주의로 인한 인권 훼손을 더는 용납할 수 없다는 하나님의 마음이 사람들에게 전달되어 시대정신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는 것이다.

경제민주화는 경제발전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발전을 통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모두가 애착을 가지는 경제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이다. 국민 모두가 애착을 가지는 한국만이 장기적으로 세계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다.